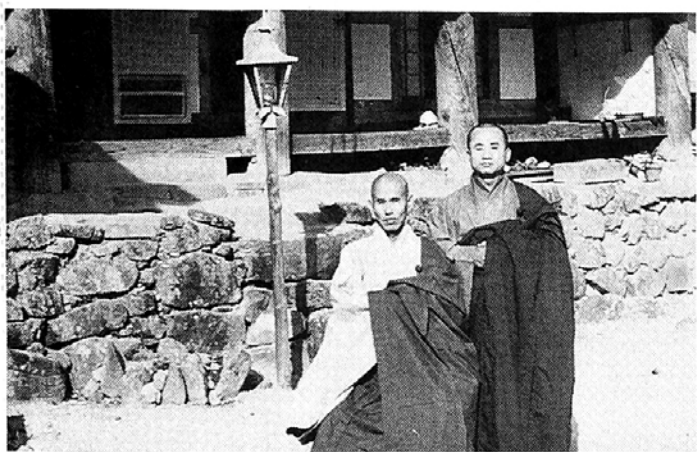


큰 스님 수행한담

극락 멀기만 합니다



◇조계암 주석시절 도훈(안좌암·오른쪽)스님과 함께.

르게 산다는 것이 다 놓아 버리는 것이 고, 다 놓아 버린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누가 내 밥을 때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불평불만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열중하면 다른 것은 볼 자리가 없어요.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조금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게 되고 아픈 그 순간에 밭 것은 매고 견딜 것은 견디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저놈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판 생각을 붙이니 불행한 것입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닥치더라도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공부하려 한다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남을 '나쁜 놈' 하고 욕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 말이나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기보다 내 마음에 먼저 닿기 때문에 내가 욕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남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접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어 벌어진 일이나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공부에 진척이 생기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로부터 사회가 있다는 선경하는 마음과 계를 지키는 마음이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있게 되니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가나 승가는 그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끄는 이유는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구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러저러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의식구조는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이다', '이 몸통이 바로 소우주(小宇宙)'다, '오른손이 남편이면 왼손은 부인이다' 하고 내 한몸과 마음에 우주 삼라만상을 축소시킬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내게로 돌리는 힘이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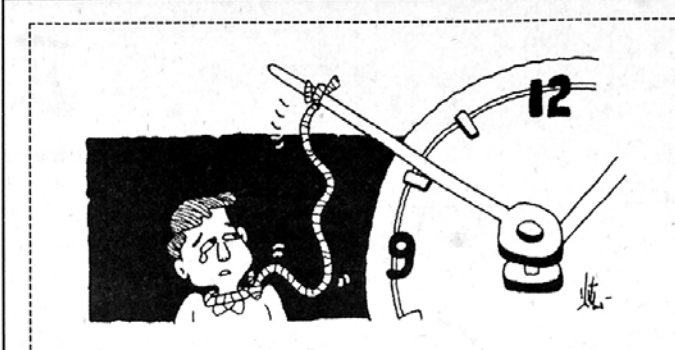
자기만 내세우지 말고 자연과 하나돼야 "고통과 절망마저도 공부방편 삼으세요"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극락은 없어요. 내 마음이 우주로 향해 열려 있다면 우주는 내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공부하면서는 여러 가지 욕심 즉, 욕망을 이겨나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불법이 아니고는 안되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도 좋은게 있으면 나쁜게 있고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고 이 순간에도 나고 죽는다는 것을 잘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생을 살다 죽으며 울고 불고 하지만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참 뜻을 안다면 울 일이 아닙니다. 의당 변화해 가는게 인생인데 뭐 그리 답답할게 있었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나 혼자만을 위한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고 전체를 감싸안으며 보람있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뿌리 튼튼히 하려면 貧道지키는 수행자 많아야 합니다 필요이상 가졌을때 공부 힘들어지죠"

안젠가 내원사의 성불암 뒤에 성수스님이 지어놓은 조그마한 토굴에 들어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방하내에 유리창을 내 놓고 혼자서 밥 끓여먹고 살면서 '하아! 이세상은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선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확연히 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한겨울을 냈는데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도토리 많이 떨어졌어요. 눈이 한자쯤 쌓였는데 어느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더군요. 인기척이 없는 곳인데 소리가 나니 이상해 뭔가 하고 창으로 가만히 내다보았더니 멧돼지가 기어올라오는 게 보이더군요. 후각이 좋으니 코로 눈을 후벼파며 새끼를 포함해서 모두 아홉 마리의 멧돼지가 토굴 주변으로 다가오는데 가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도토리열매를 까먹는 소리가 어그적 어그적 나더군요. 한참 보고 있다가 웬만큼 먹었다 싶어 '한 번 놀러와야지' 싶어 소리를 파악 싶더니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조금 있으니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오더군요.

알게 됩니다. 짧은 사람들에게 산중에 조그만 토굴하나 해 놓고 정말 가 있고 싶을때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보고 권하곤 합니다. 그 생활에서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욕할 게 있었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다 즐기게 되지요. 그렇게 다 놔 버린 사람들에게는 지진이 나도 마음은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60년 수행생활에서 빠져리케 느끼는 것이 우리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우리 스님네의 자세가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여가는 뒷모습 하나에서도 선(禪)의 향기가 풍겨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참된 수행자가 많아야 합니다. 절 불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많이 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호칭이 큰스님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이 자신을 칭할 때 '빈도(貧道)'라고 하는데 그 빈도의 뜻을 바로세워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중이 잘 먹으려고 하



이 글의 시작에 앞서 철학, 과학(수학), 종교, 특히 불교의 의미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B·러셀은 "철학이란 신학과 과학의 중간 영역의 학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神學)이란 유대·기독교에서의 신학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신의 존재, 절대성을 전제로하여 이미 수립된 교리를 합리화하는 설교론(說敎論)적 입장이다. 철학은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근원적인 체계를 세우는 일이며 그 체계의 출발점을 찾는 일이 핵심적 작업이다. 그 좋은 보기가 있다. 회람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타레스는 물을, 피타고라스는 수를 근원적인 것으로 삼았다. 또 근대과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 허상인가? 아니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누

지는 것이다. 나는 먼 과거와 미래에 있는 생명 흐름의 결합점에 있는 존재이다. 종교는 이 전 생명의 흐름 속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생명의 집합점을 의식하는 일이다. 따라서 철학과 과학이 생명체의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묻는 작업이다. 그러나 불교는 B·러셀이 말하는 신학적 태도보다는 "과학과 철학"을 내포하는 합리적 태도로 일관한다. 어떤 대상도 절대화하지는 않으며 합리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기에 불교는 처음부터 과학 탐구와 같은 태도로 사회, 자연의 법칙성에도 큰 관심을 갖는다. 수학이 여타의 과학과 다른 점은 실험, 관찰이 없으며 사유 세계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합리적 태도는 과학 가운데서

불교는 철학·과학 포함한 합리적 종교 실험·관찰보다 사유적인 수학과 비슷

군가의 막대한 힘에 의해 전개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했었다. 절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실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절대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의심해도 "자신이 여기서 의심(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철학적인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화된 것이다. 종교는 죽음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철학적인 "생각한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는다"는 자각에서 출발하고 그 의미를 묻고 궁극적으로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 곧 "마음이 편해지고 살아 있는 보람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문제에 관해 과학과 종교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단순한 생물적인 "생사"의 문제만이라면 과학의 대상이다. 과학은 생명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개인의 주관도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오직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된다. 생명은 영원한 미래에서 나에게 전해 지며 또한 나로부터 구원의 미래에 이어

필자소개: 1927년 日 도쿄 생, 日 외세대에 졸업, 美 어번대 석사, 67년 제 앨버타대학 이학박사, 日 고베대·도쿄대 객원교수, 韓 한양대 명예교수, 수확문화연구소 장,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저서 <한국 수확사> 등 다수

Advertisement for 'Bijianlu' (碧巖錄) featuring a large title, images of the book covers, and promotional text. The text includes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훈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and lists features like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and '3월중 출간에정'.